

제1회 청년들의 농업·농촌
컨퍼런스 <여럿이농사> 발표자료
(2017.12.21)

미래 청년들의 농업, 전망과 제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센터장

김귀영(사무실) 02-2058-2071

E-mail : nongwoo64@epis.or.kr



[뉴스+] IMF 시절로 역주행하는 청년실업률... '혹독한 취업난'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2-17 14:30:50

수정 : 2017-12-17 14:30:50

가

가



이번 주에는 1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는 우울한 소식이 나왔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쉰 20대(20~29세) '백수' 인구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청년 고용시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그 겨울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보다 냉랭하다는 뜻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 겨울의 청년들이 1999년의 선배들보다 더 혹독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귀농

2016년	12,875가구(20,559명)
2015년	11,959가구(19,860명)
증감(률)	↑ 916가구(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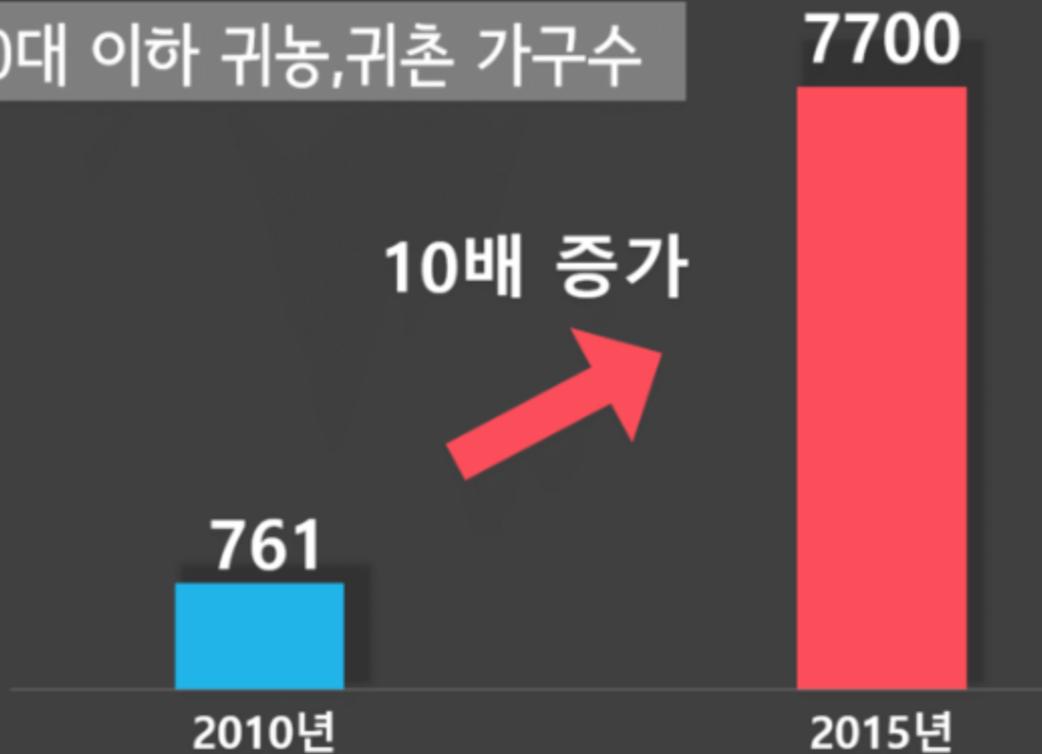
귀촌

2016년	322,508가구(475,489명)
2015년	317,409가구(466,778명)
증감(률)	↑ 5,099가구(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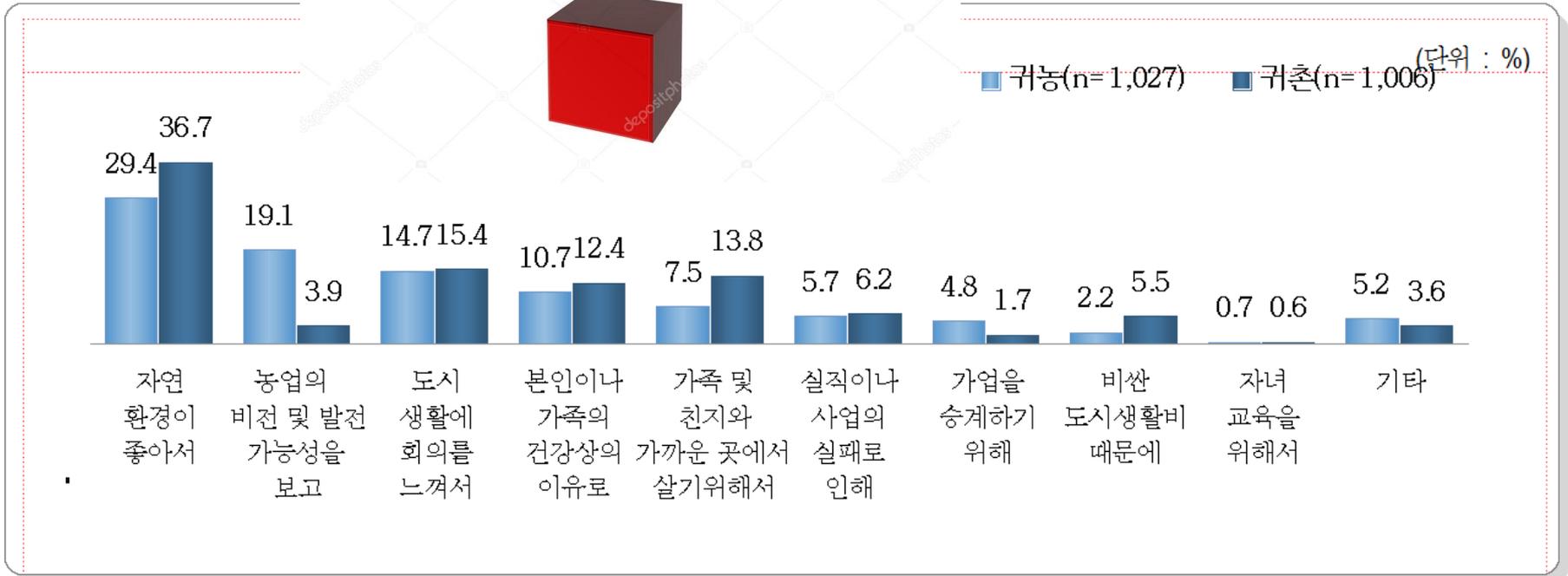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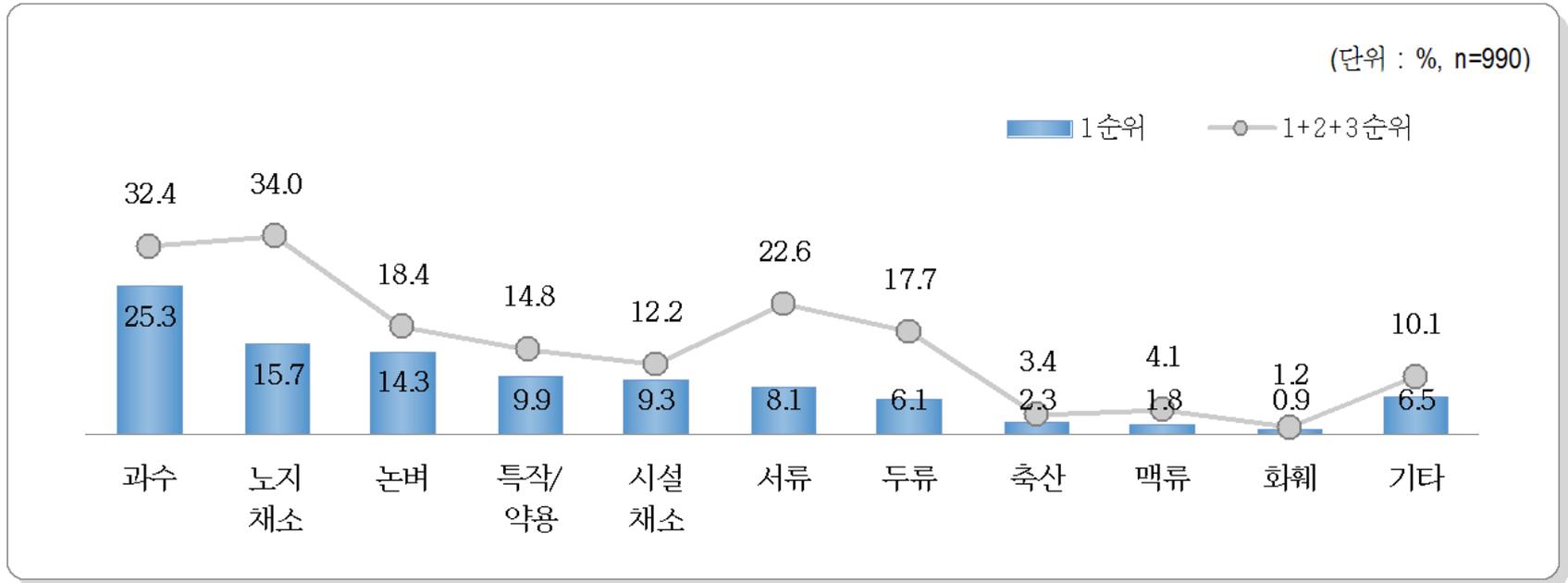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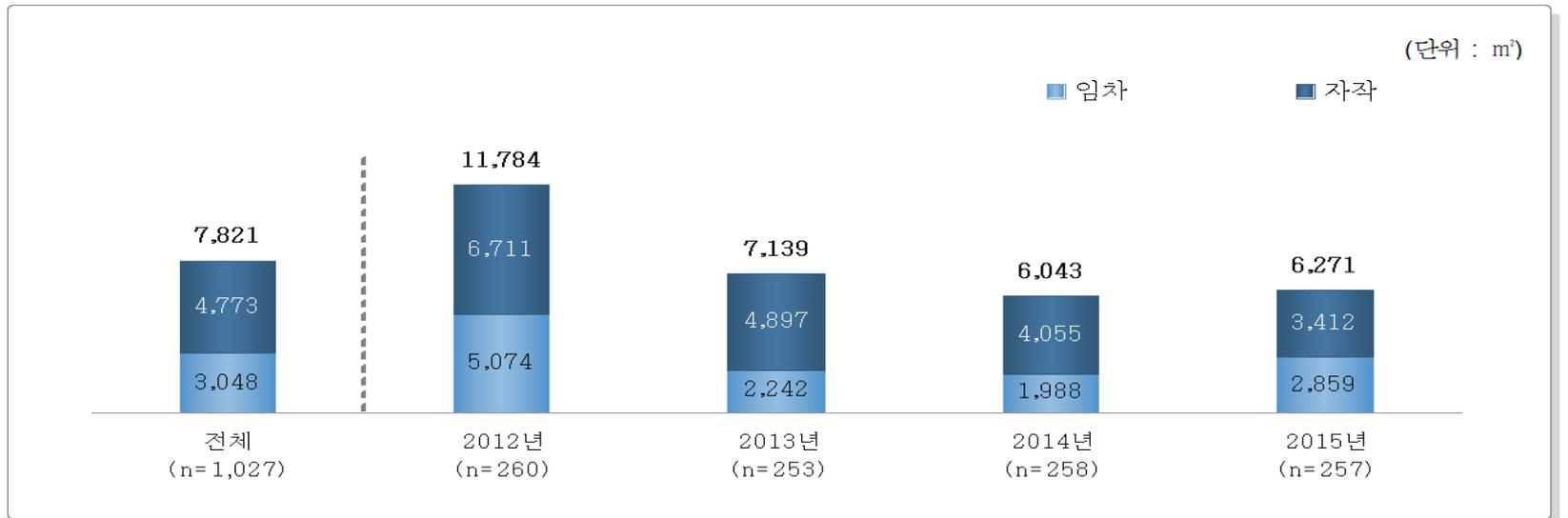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농림수산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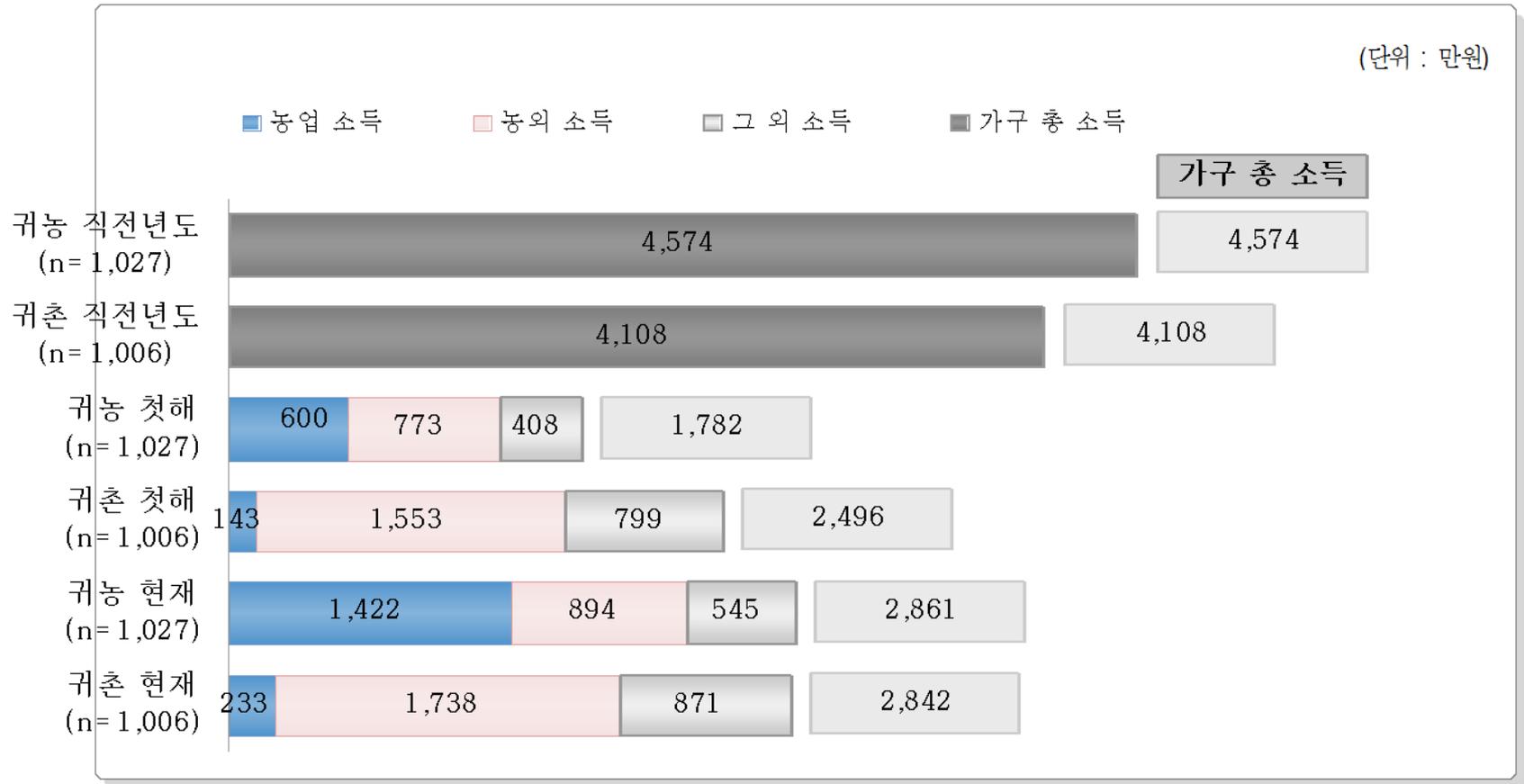
주소득 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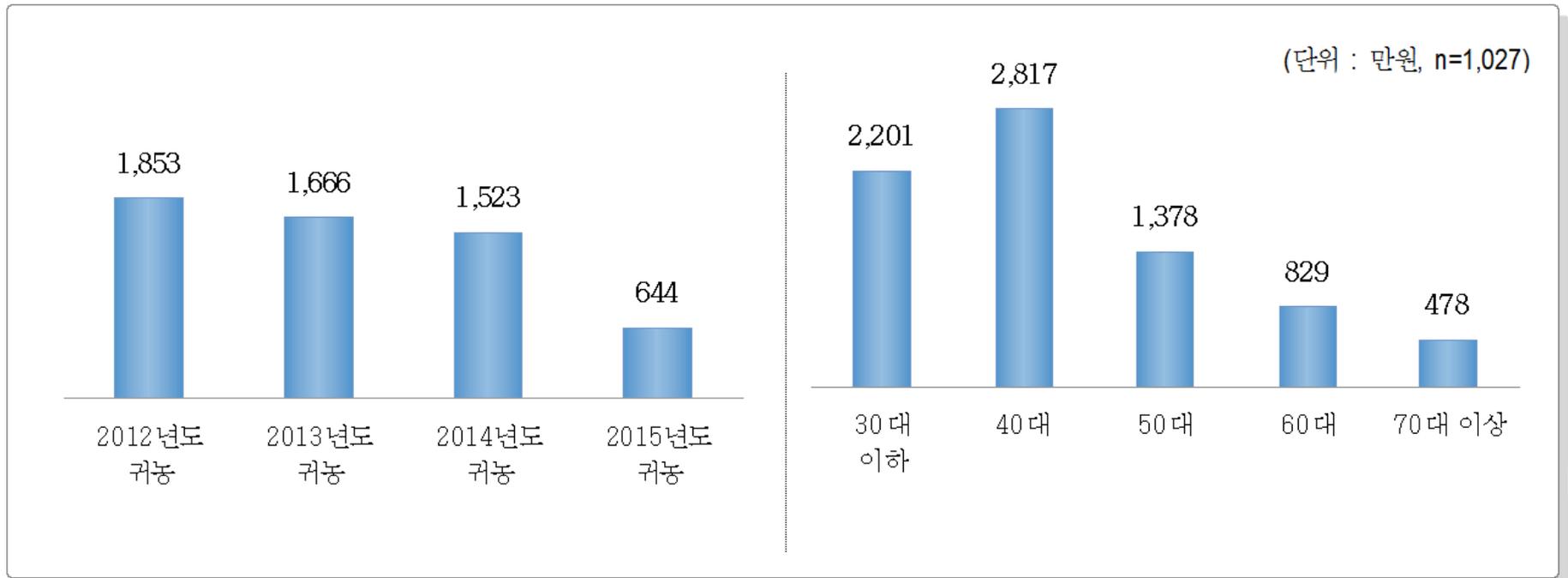
농지 보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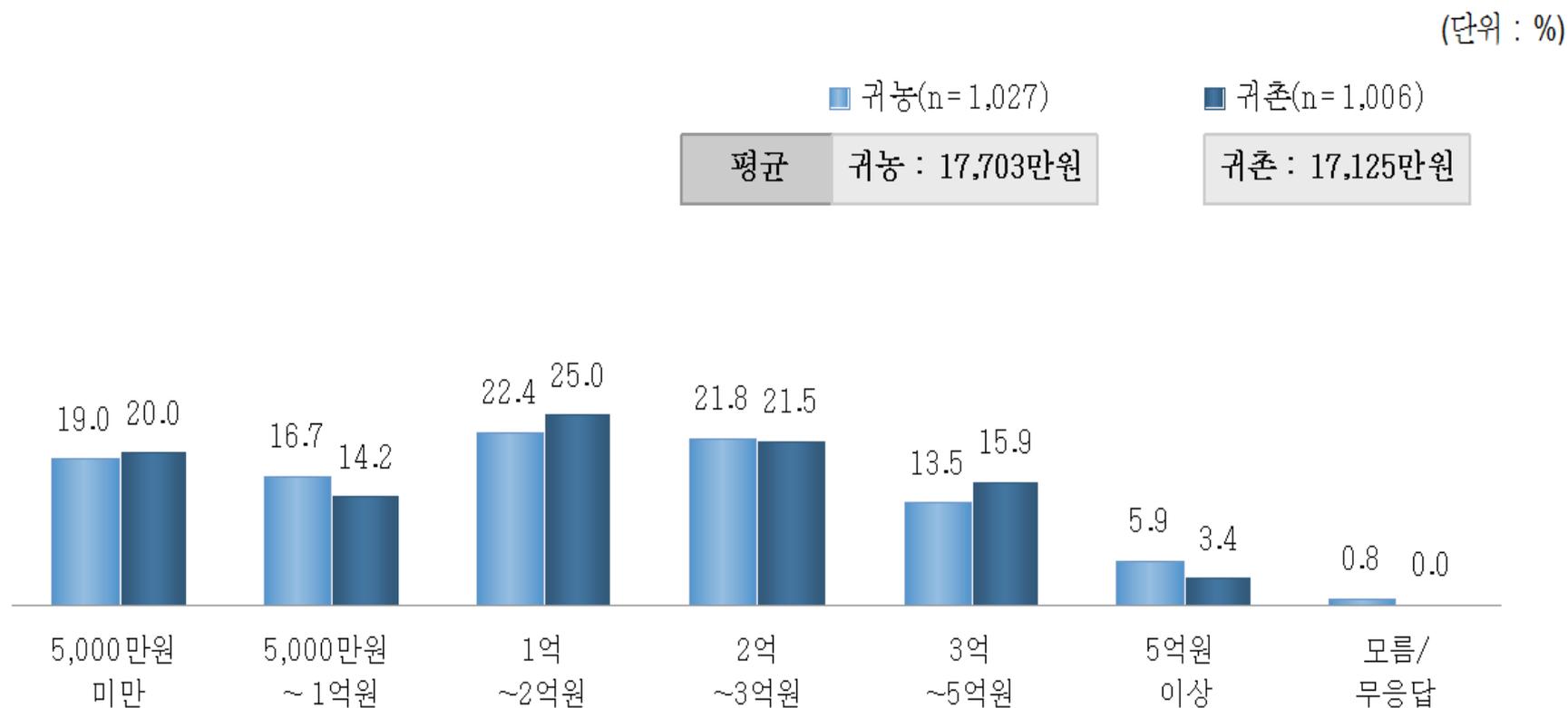
귀농전후 소득



연령별 농업소득 구성



정착자금 규모



20년간 농가소득 현황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20년전 대비
농가소득 (농업+농외+이전+비경상소득)	21,803	23,072	35,503	32,121	34,950	37,215	70.7%
농업소득 (농업경영결과 소득)	10,469	10,897	11,815	10,098	10,303	11,257	7.5%
여가소득 (어업+어외+이전+비경상소득)	18,780	18,875	28,028	35,696	41,015	43,895	133.7%

농가 소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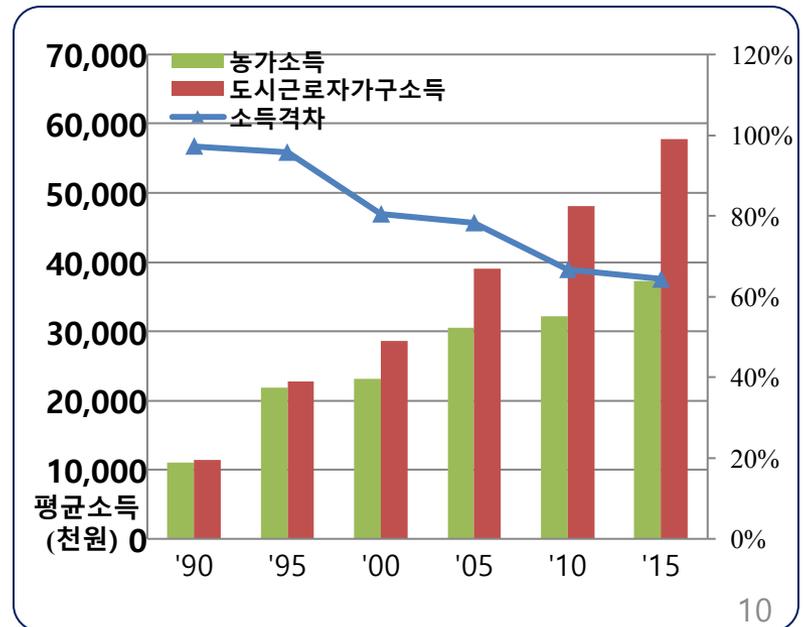
▶ 농업소득 정체

- (1995) 10,469천원 → (2005) 10,098 → (2015) 11,257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 가구 소득 감소

- (1990) 97.2% → (2000) 80.5% → (2015) 64.4%

▶ 벼농사 평균 노동시간 : 143시간 (호당 1.2ha기준)



우리나라 자살률 12년째 OECD(35개국) 1위

한국 삶의 질 하위권...국민 행복 '비상'

OECD '더 나은 삶 지수' 평가서 한국 28위

기사입력: 2016.06.05 13:36 (최종수정 2016.06.05 13:36)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부 기존의 역할)

국민의 정신건강
영역까지 확대

치유승마



도시농업



꽃 생활화



반려동물



농촌휴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도시의 고용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도시일터로 돌아갈 사람

**농촌에 살며 농업을 하는 것에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미국의 소농 소득 프로그램 “마켓 가드너”에서 본 것들

그들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 _ 먼저 그들 대부분이 젊은 층의 신규진입농이고,
- _ 1에이커(약 1244평)의 소규모의 경작지를 집약적intensive으로 농사짓는 소농이라는 점 (미국의 평균경직면적이 183ha, 약 55만평임을 감안했을 때 더더욱)
- _ 구체적 방법론을 확립했고 근거 데이터와 , 실행 메뉴얼 북을 가지고 있는 부분.
- _ 무엇보다, 그들이 조수익 8000만원~1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며, 지속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 _ 농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안하려는 한다는.. 농업을 하나의 매력적인 life_style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bout JM

JM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1.5ace 농사를 짓고 있는 소농(marketgardener)이다

그는 10년 넘게 채소 농사를 지어왔으며, 생산한 농산물을 200가구와 C.S.A(공동체 지원농업, 직거래 꾸러미)를 맺어 공급하는 한편으로 계절 장터(seasonal market stand)에도 판매하고 있다.

JM은 농부이자 교육자이기도 하다. 또한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집약 작부에 관한 전문 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 'Market_garder'는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인간 규모의 음식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농업을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농직업을 갖고, 농적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용기와 영감을 불어 넣는다.

그는 부인과 함께 캐나다 퀘벡에서 매우 작은 농장을 운영한다. 하지만, 그는 전체 면적 중 단지 약1800평정도를 '고정 이랑'방식으로 경작하며 1000평당 1억원가량의 소득(조수익)을 올린다. 그중 순수익을 60%이며, 이 정도 수준이면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재정규모이다. 그들이 농장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작부체계와 수익성, 지속성을 고려해 '크게 키우기 보다는 적절히 키우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JM은 '지적인 농장설계, 적정기술, 토양생물학 시스템 기반으로 하는 농업'을 매우 강조한다. 그는 농장의 기술적 요소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엮는 이야기꾼이며, 캐나다와 유럽, 호주, 미국 등지에서 100여건에 이르는 워크샵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열어왔다. 그는 여러잡지에 기고해 왔으며, 여러 방송에도 출현했다. 소규모 농장에 적합한 도구들에 관한 조언을 관련 기업에 하기도 했다.

그는 거대 음식시스템(Mass food production)을 대중들에 의한 음식시스템으로(food production by the masses)로 바꾸어나가길 희망한다.

마켓가드너 저자 농장

“마켓 가드너란 궁극적으로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 행복한지”

우리는 이웃들과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무경운, 저투입, 소형 농기계만 사용
판매는 직접 소비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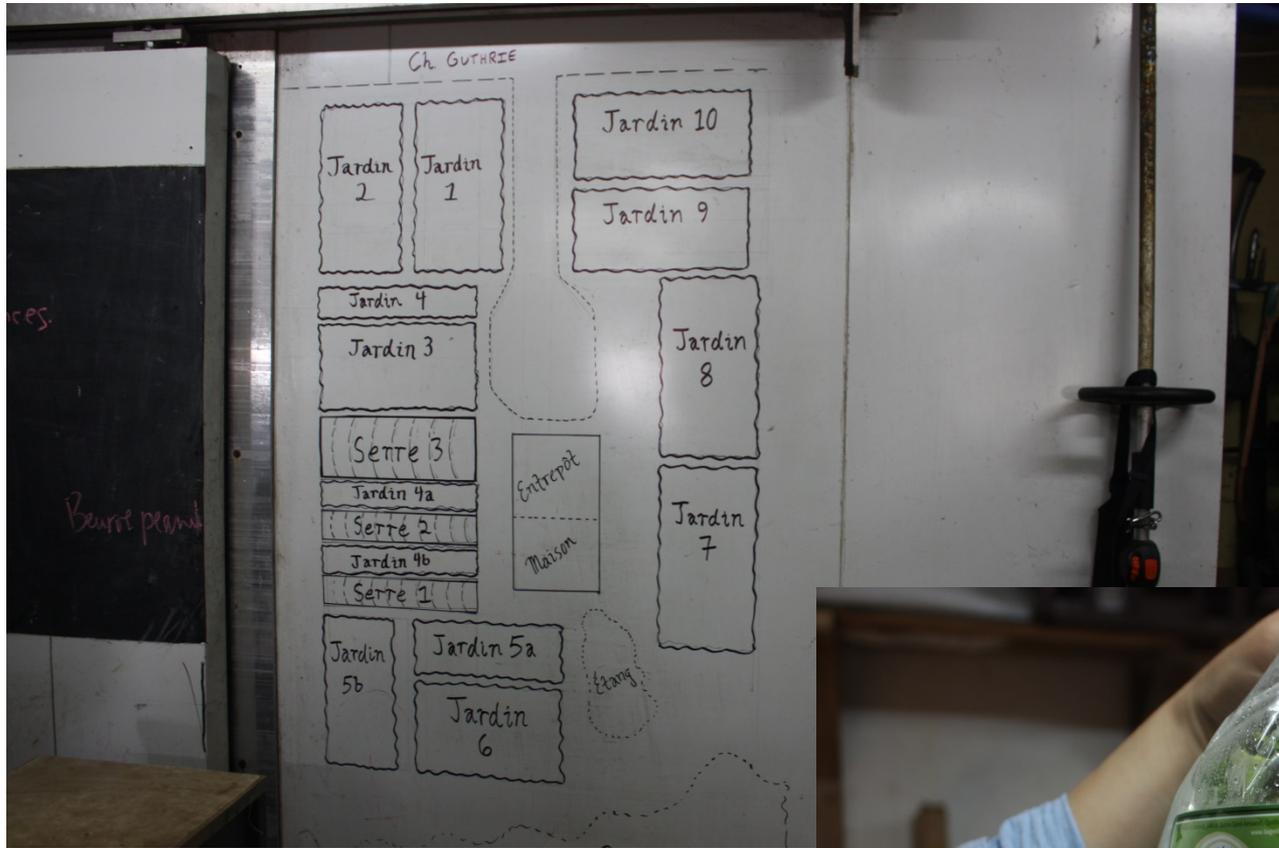
마켓가드너 JM 농장의 인턴 직원 의 모습



1년에 2명에서 3명의 인턴을 선발해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급여를 주지 않는 인턴 그러나, 그는 연신 웃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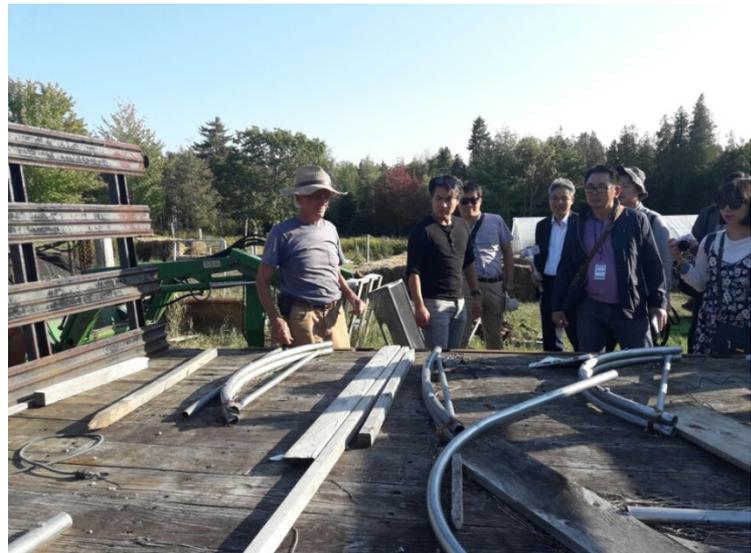
그러나 자신의 농장을 연 이후에도 배울 것이 있으면 스스로 와서 부족한 기술을 배운다

“대학 졸업후 10에이커 농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거기는 고투입 농업을 하기에 1.5에이커인 이 농장의 수익과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복하지도 않았고요”



농장설계와 포장된 유기농산물

미국의 마켓 가드너 1세대 포시즌농장의 엘리엇과 딸



기술을 공유하는 가치



치킨트럭과 이동레일이 있는 하우스



소농 프로그램을 도와 주는 회사(중간지원조직)





“우리는 소농들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종자를
개발하고, 그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지원합니다.”



우리는 왜 농업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왜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그 다음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어디서 할지

언제부터 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